

메디포스트 (078160)

골관절염 치료판도를 바꾸고, 피부 항노화 시장까지 공략도

2025년 9월 8일

제약/바이오 Analyst 김혜민
 hyemin.k@kbfg.com

골관절염 치료판도를 바꾸고자 한다

메디포스트는 제대혈보관사업 및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현재는 중등증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의 일본 및 미국 임상연구개발을 진행하며 환자들의 본질적인 미충족수요의 개선을 이끌어가고자 한다.

국내 카티스템 장기 추적 데이터를 통해 추가 시장진출을 꿈꾼다

메디포스트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는 이유는 국내에서 무릎 골관절염 대상 출시된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의 일본 및 미국 시장 진출가능성에 기인한다. Orthopaedic Journal of Sports Medicines 2021에 개재된 카티스템의 국내 임상3상 장기 추적 데이터를 보면 카티스템의 장기 유효성을 확인했다. 추가적으로는 재생된 연골의 기능평가 지표인 VAS (시각 통증 점수), IKDC Score (국제 무릎 기록 위원회 설문점수) 및 WOMAC (서부 온타리오 및 맥마스터 대학교 골관절염 지수)에서 3~5년 장기추적 시점 비교 시 카티스템 투약군과 미세천공술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며 (p<0.05) 중등증 골관절염 대상 근원적인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부분이 고무적이었다.

제대혈은행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성장, 향후에는 제대혈 기반 혈장을 통한 항노화/K-뷰티 시장까지

메디포스트는 국내에서 셀트리라는 점유율 1위 제대혈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별도 기준 매출액 392억원을 기록하며 사업부 매출비중 53%를 차지했는데 이는 2020~2024년 연평균 16.8% 성장한 수치였다. 또한 국내 항노화/K-뷰티 시장이 개화함에 따라 동사의 항노화연구팀에서 연구 중인 제대혈 기반 혈장도 피부 노화 억제 및 세포 회복에 대해 초기 효과를 보여준 바 있어 향후 연구개발 진전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공략도 가능할 수 있다.

임상개발 실패 리스크, R&D 비용에 대한 부담 일부 존재

바이오텍 특성 상 임상개발 실패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지만 국내 장기 추적 결과를 비롯한 RWE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 이는 다소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단 중단기적인 R&D 지속에 따른 비용증가에 따른 캐쉬번은 단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Not Rated

목표주가 (원)	N/A
Dividend yield* (%)	N/A
Total return (%)	N/A
현재가 (9/5, 원)	12,330
Consensus target price (원)	N/A
시가총액 (억원)	4,219
※ Dividend Yield는 12개월 Forward	

Earnings Forecast & Valuation

결산기말	2022A	2023A	2024A	2Q25 (LTM)
매출액 (십억원)	64	69	71	72
영업이익 (십억원)	-17	-25	-49	-66
지배주주순이익 (십억원)	3	6	-63	-99
EPS (원)	143	215	-1,647	-2,611
증감률 (%)	흑전	50.3	적전	적전
P/E (x)	91.7	38.0	N/A	N/A
EV/EBITDA (x)	N/A	N/A	N/A	N/A
P/B (x)	1.7	1.0	1.7	2.5
ROE (%)	1.8	2.4	-22.2	-38.4
배당수익률 (%)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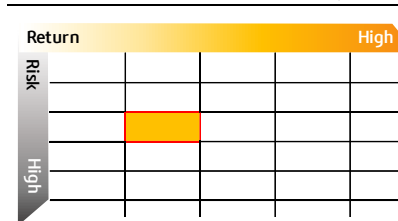
Trading Data

Free float (%)	59.2
거래대금 (3m, 십억원)	1.1
외국인 지분율 (%)	3.8
주요주주 지분율 (%)	스카이메디 유한회사 18.2
	마블2022홀딩스 유한회사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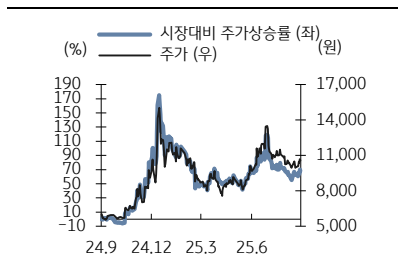
Stock Price Performance (Total Return 기준)

주가상승률 (%)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0	11.5	21.6	76.0
시장대비 상대수익률	-2.1	3.0	13.3	65.8

Risk & Total Return (annualized over three years)



Stock Price & Relative Performance



자료: 메디포스트, KB증권

I. 기업개요

오래된 업력과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한 골관절염 시장 공략

메디포스트는 2002년 6월 설립되어 2005년 7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다. 동사는 제대혈보관사업 및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현재는 중등증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의 일본 및 미국 임상연구개발을 진행하며 환자들의 본질적인 미충족수요의 개선을 이끌어가고자 한다.

그림 15. 메디포스트 사업 포트폴리오

1세대 줄기세포치료제 + 국내 M/S 1위 제대혈은행 +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및 건강기능식품까지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



자료: 메디포스트, KB증권

표 1.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 (1H25 기준)

치료제	적응증	임상국가	전임상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품목허가	비고
CARTISTEM	무릎 골관절염	한국						2012년 시장진출
		일본						임상3상 진행 중
		미국						임상1/2a상 종료; 3상 IND 준비 중
	발목 골관절염	한국						발목관절 적응증 확장; 개발 계획 수립 중
SMUP-IA-01		한국						임상2상 완료, 2년 추적관찰 중
		미국						Pre-IND 미팅 완료, 1상 생략 및 2상 가능
PNEUMOSTEM	기관지폐이형성증	한국						임상2상 종료
		미국						임상1/2상 종료, 미국/유럽 ODD 지정, 미국 Fast Track

자료: 메디포스트, KB증권

II. 투자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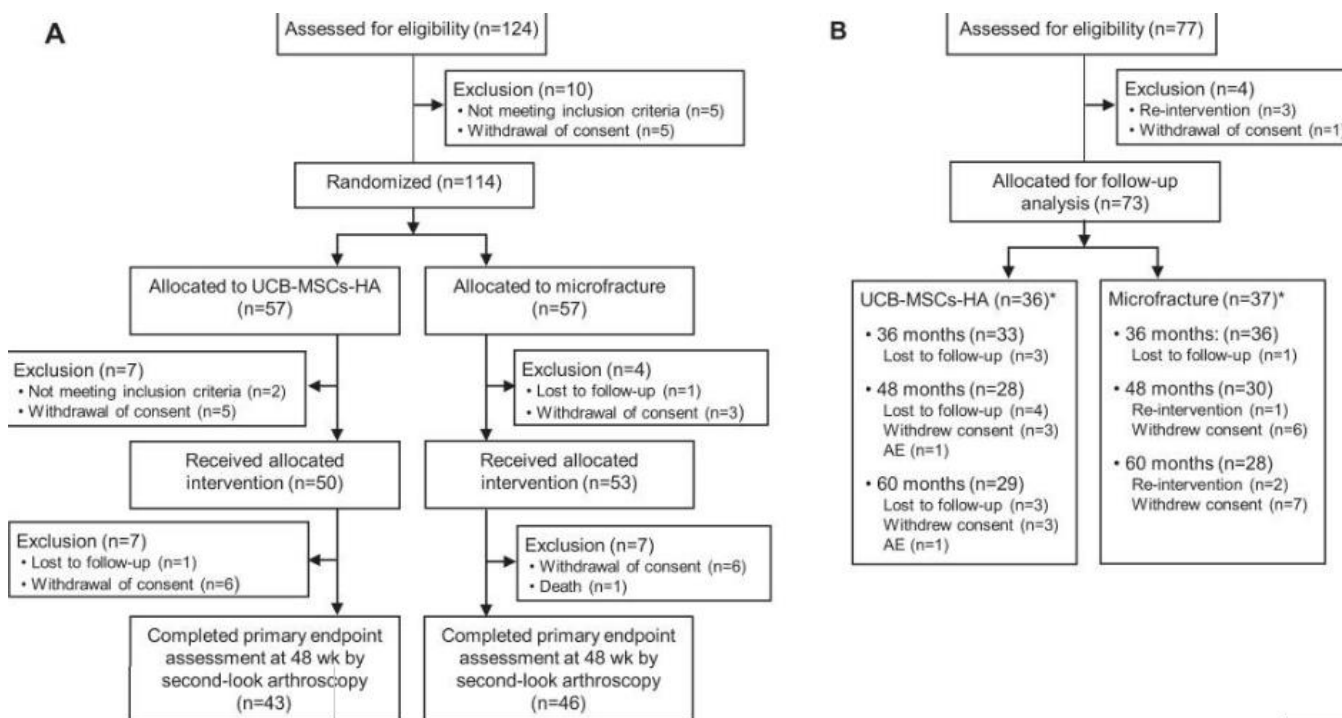
카티스탬의 장기 데이터를 토대로 추가적인 시장에 진출할 것

메디포스트의 주요 투자포인트는 국내에서 2012년 출시되어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시판되고 있는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탬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일부 존재할 수 있지만, 무릎 골관절염은 글로벌 골관절염 시장규모에서 42.1%를 차지하고 중등증 환자 대상으로는 근원적인 재생/회복을 유도하는 치료옵션이 부재하며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국내 임상3상 장기 추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보는 카티스탬의 장기 유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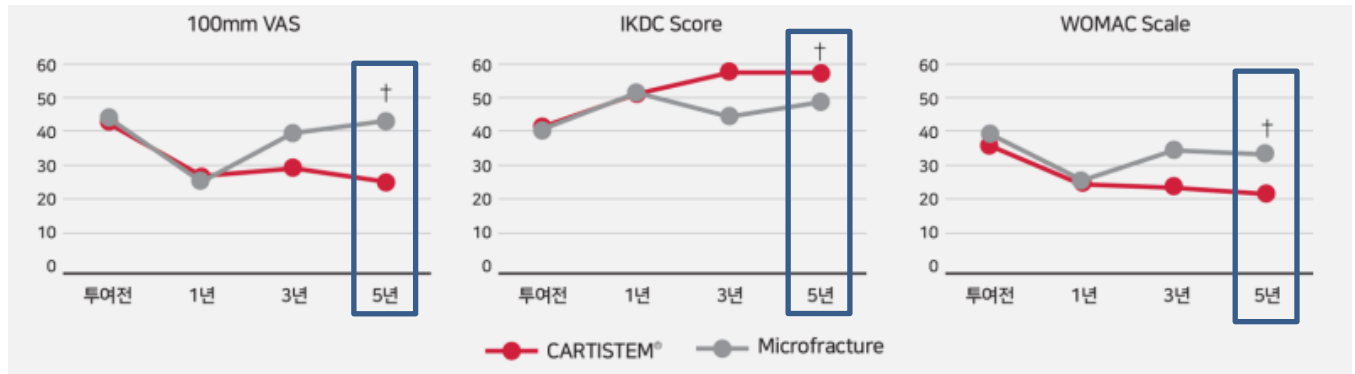
Orthopaedic Journal of Sports Medicines 2021에 게재된 카티스탬의 국내 임상3상 장기 추적 데이터를 보면 카티스탬의 장기 유효성을 확인하며 향후 유행률이 높은 글로벌 지역 (일본, 미국 등) 진출 시 강점을 지닌다는 시사점이 존재한다. 총 114명 대상 된 임상3상에서 총 73명이 장기추적 임상에 포함되었고, 48주차 시점 ICRS 등급 1등급 이상 개선은 카티스탬 투약군에서 97.7% vs. 미세천공술 그룹 71.7% ($p=0.001$)로 확인되었고, 전체 조직학적 평가점수도 카티스탬 투약군에서 우위가 확인된 점 ($p=0.036$)이 긍정적이었다. 추가적으로 재생된 연골의 기능평가 지표인 VAS (시각 통증 점수), IKDC Score (국제 무릎 기록 위원회 설문점수) 및 WOMAC (서부 온타리오 및 맥마스터 대학교 골관절염 지수)에서 48주 시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3~5년 장기추적 시점에는 카티스탬 투약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p<0.05$).

그림 16. 카티스탬 국내 임상3상 장기추적 디자인



자료: Orthopaedic Journal of Sports Medicine, KB증권

그림 17. 카티스템 국내 임상3상 장기추적 주요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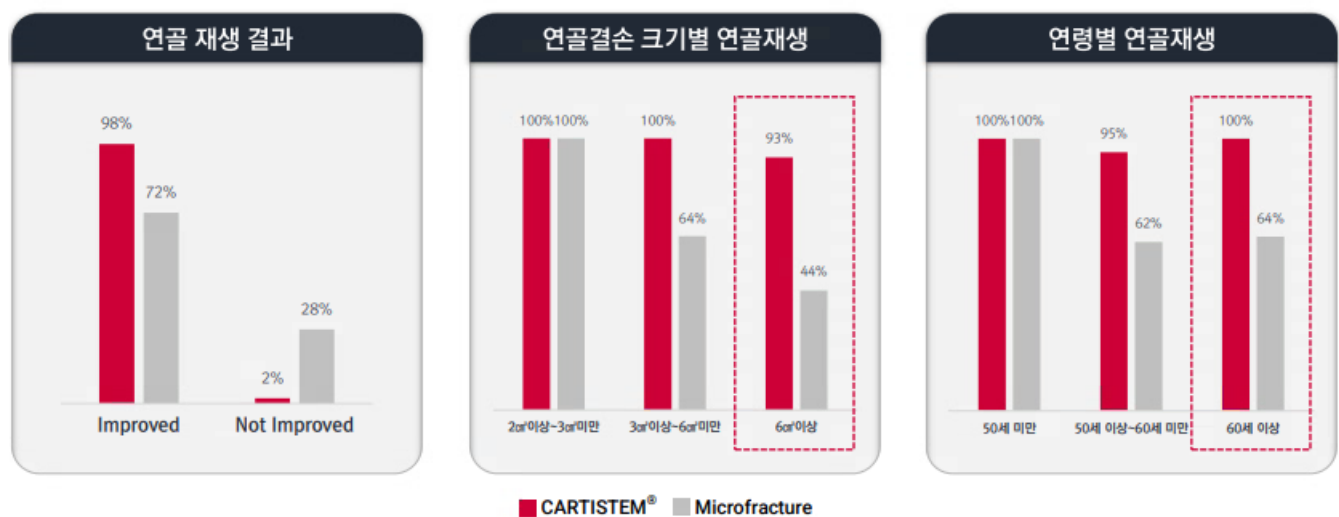
자료: 메디포스트, Orthopaedic Journal of Sports Medicine, KB증권

추가적으로 고무적인 부분:

1) 연령과 무관하게 유도된 관절회복

장기 추적결과 3~5년차 이후에는 주요 지표에서 모두 미세천공술 그룹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임상3상 48주 시점 기준 ICRS 1/2등급 개선 비율은 카티스템 투약군에서 65.1%로 관찰된 반면 미세천공술 그룹은 45.7%로 확인되었고, 개선도의 등급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또한 연령에 따른 하위분석 결과 미세천공술 그룹은 나이 (50세 미만에서 100%, 50~59세 환자에서 95.5%, 60세 이상 환자에서 100%)와 무관한 회복을 보인 반면 미세천공술은 50세 미만에서 100%, 50~59세 환자에서 61.9%, 60세 이상 환자에서 64.3%의 개선이 나타나며 50세 이상 환자에서 유의미한 등급 개선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50~59세 환자군 $p=0.009$, 60세 이상 $p=0.043$).

그림 18. 카티스템 국내 임상3상 연골 재생 효능



자료: 메디포스트, Orthopaedic Journal of Sports Medicine, KB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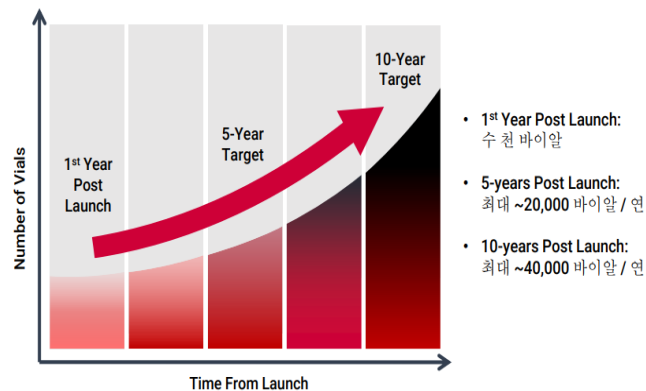
국내 장기추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본과 미국에 진출을 꿈꾼다

카티스팀의 추가적인 확장성은 향후 일본 및 미국 진출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파트너사 EVASTEM (현재 MEDIPOST K.K로 사명변경)과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고 연내 마지막 환자의 종료가 임상을 완료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임상3상에 대한 최종결과보고서 (CSR) 수령 및 임상 결과발표를 기대해볼 수 있다. CSR 수령 뒤 2H26 상업화를 위한 허가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약가 관련 협상 및 보험 등재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며 매출발생을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4Q25 임상3상 IND 신청이 예정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3상 프로토콜 공개 및 첫 환자 투약을 기대해볼 수 있어서 다수의 모멘텀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며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판단한다.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일본/미국 상업화 모멘텀을 바라보면 고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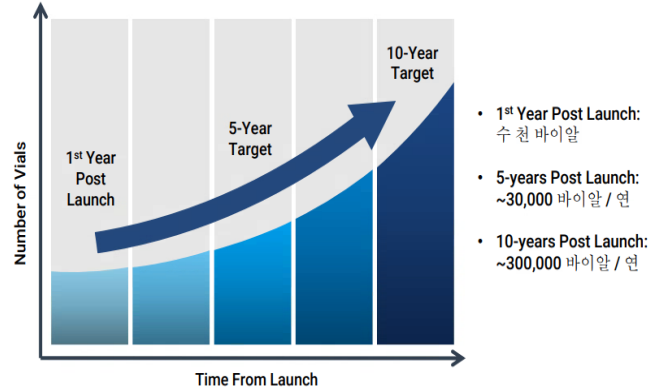
현재 메디포스트의 사업계획은 일본과 미국 판매허가 획득 후 대규모 매출을 발생시키는 부분인데, 일본의 경우 출시 이후 5년차에 2만 바이알, 10년차에 4만 바이알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5년 내 3만 바이알, 10년내 30만 바이알을 목표로하고 있다. 미국 Vericel이 판매하고 있는 MACI라는 치료제의 약가가 건당 3.8만 달러에서 4.5만 달러 수준임을 감안하고 일본의 경우 이에 절반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가정한다해도, 일본에서만 5년차 시점에 5,200억원 수준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향후 실적 개선세를 기대해볼 수 있는 포인트로 바라볼 수 있다.

그림 19. 카티스팀 일본 판매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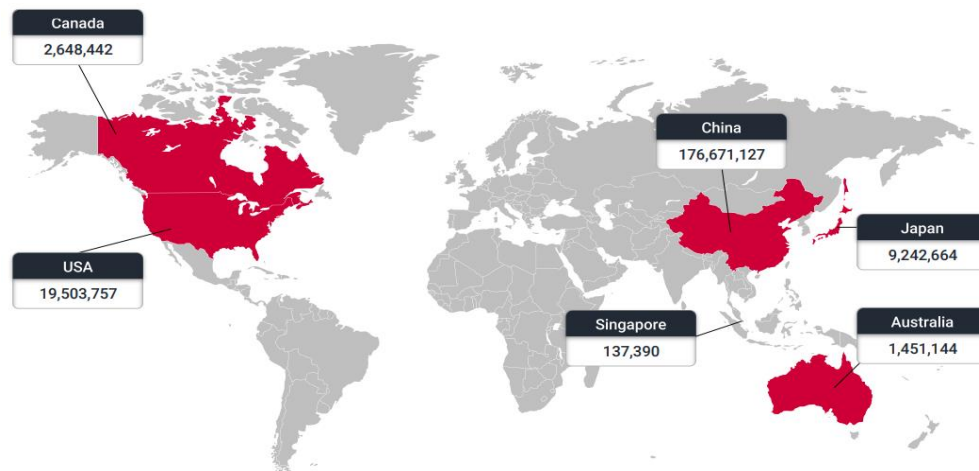
자료: 메디포스트, KB증권

그림 20. 카티스팀 미국 판매 목표



자료: 메디포스트, KB증권

그림 21. 8대 주요 시장 무릎 골관절염 환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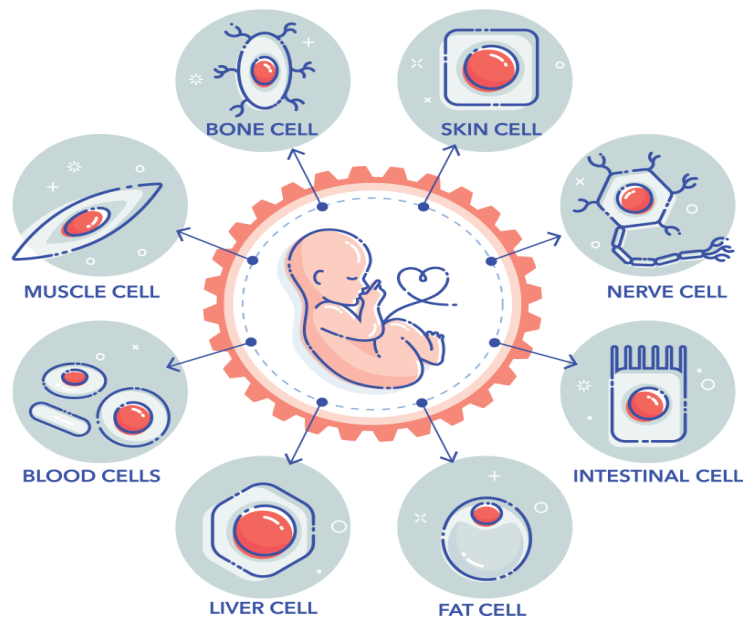


자료: 메디포스트, KB증권

국내 제대혈은행 점유율 1위: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 중

바이오텍 특성 상 단일 치료제에 집중을 하면 임상소식/상업화 성과에 따라 등락폭이 확대될 수 있지만, 메디포스트의 경우 셀트리라는 브랜드명의 국내 1위 점유율 제대혈은행을 보유하고 있다. 제대혈은행의 경우 제대혈 보관 및 조혈모세포 이식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며 소아암,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제대혈 이식이 주목받는 이유는 신생아 분만시 분리된 탯줄로부터 채취되어 산모와 아기의 고통이 없으며 조직적합성항원 (HLA) 일치조건 6개 중 3개 이상 일치 시 이식 가능 (vs. 골수 이식 6개 일치 필요)한 점이다. 또한 면역거부반응 발생률도 골수 이식대비 낮으며 현재 뇌성마비, 소아당뇨, 발달장애 등의 치료로 확대 중이고 미래에는 더 다양한 난치성 질환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22. 제대혈 세포의 확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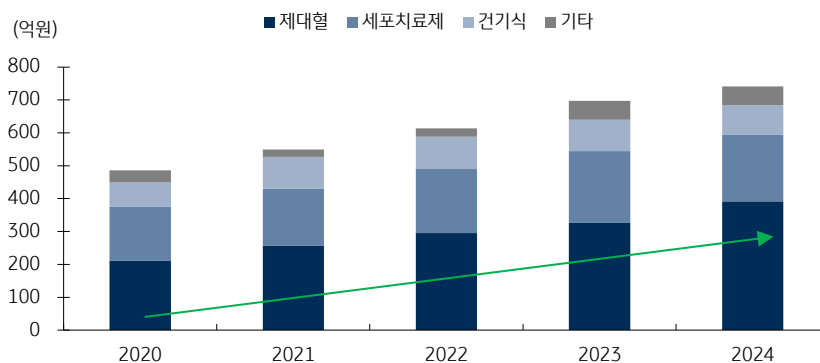
자료: CBBA, KB증권

2024년 기준 제대혈은행 매출 비중 53%, 2020-2024년 연평균 17% 성장

메디포스트 2024년 기준 별도 매출액 중 제대혈은행이 차지하는 부분은 약 53%로 392억원을 기록했다. 세포치료제, 건기식 및 기타 매출은 각각 203억원, 89억원, 58억원을 기록하며 2020-2024년 연평균 5.4%, 4.3%, 11.8% 성장했고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실적을 보여주며 현재는 비용소모가 비교적 큰 카티스템에 대한 부분을 상쇄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줄기세포 치료제의 직접생산 등을 감안함과 동시에 북미지역 다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CGT CDMO 옴니아바이오도 선제적으로 확보한 바 있어서 추후 카티스템의 미국 진출을 위한 준비가 선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추가적인 매력으로 볼 수 있다.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매출은 고무적,
제대혈은행 비중 커보일 수 있지만 꾸준한 성장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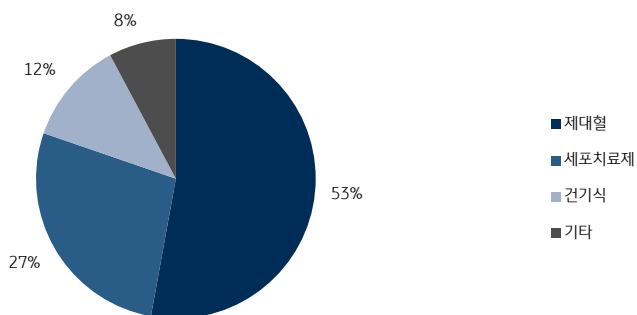
그림 23. 메디포스트 사업별 매출 (별도 기준)



자료: 메디포스트, KB증권

제대혈 사업이 현재는 방어 중,
카티스템 상업화에 따라 이익구조 개선 기대

그림 24. 메디포스트 사업별 매출비중 (별도 기준)



자료: 메디포스트, KB증권

떠오르고 있는 항노화/K-뷰티 트렌드, 제대혈 혈장 항노화로 공약을 꿈꾼다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는 줄기세포의 항노화/K-뷰티 트렌드 동행 가능성이다. 2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에 방문하여 피부과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2023년도 대비 약 3배 수준 증가 (23.9만명 vs. 70.5만명)하였고, 전체 외국인 진료 내 피부과 비중은 56.6%로 증가하며 (연평균 증가율 37.4%) 기존 성형외과 (11.4%), 내과 (10.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과거에는 줄기세포 배양/이식에 대한 법적 제약으로 인해 일본 등 세포치료제 투약이 보다 보편화 되어있는 일본으로의 원정 치료가 진행되었지만 현재는 지방줄기세포 등과 같은 수율이 우수해 체형 개선 및 노화 관리가 동시에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할 수 있다.

제대혈 혈장을 통한 피부 노화 억제 및 세포 회복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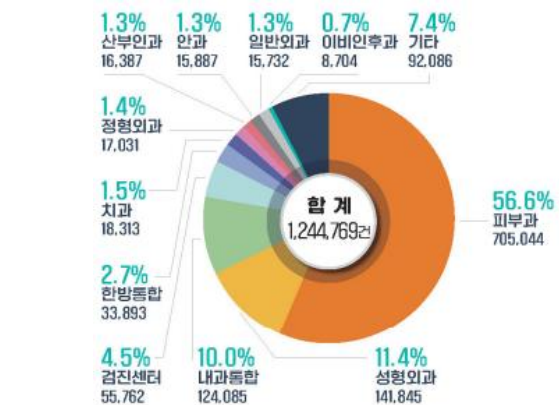
메디포스트는 제대혈로부터 분리한 혈장이 피부 노화 억제 및 세포 회복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 연구 결과를 Rejuvenation Research에 게재했다. 주요 데이터로는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항산화 효소 카탈라아제의 농도가 일반 성인 혈장 대비 3배 높은 농도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른 산화 스트레스 완화, 손상 피부 세포의 회복 속도 개선 등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향후 줄기세포 기반 항노화/K-뷰티 시장 개화 시 메디포스트의 항노화연구의 추가적인 성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5. 2024년 의료기관 유형별 외국인환자 현황 (실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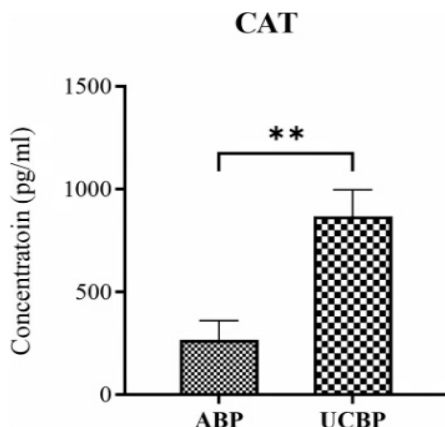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B증권

그림 26. 2024년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현황 (실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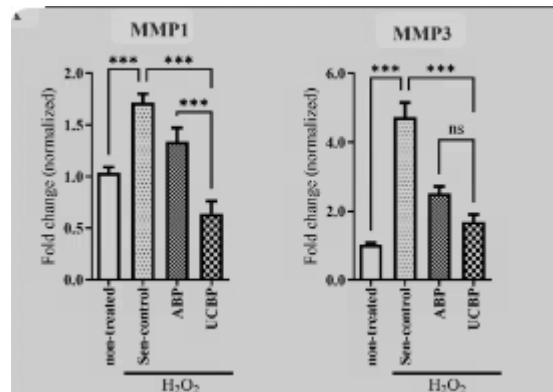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B증권

그림 27. 카탈라아제 효소 농도 비교



자료: Mary Ann Liebert, KB증권

그림 28. MMP1/3 지표 변화 비교



자료: Mary Ann Liebert, KB증권

III. 리스크요인

바이오텍 산업 특성: 임상개발 리스크

메디포스트는 골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을 일본 및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임상개발단계에 있으며 바이오텍 산업 특성 상 임상개발의 실패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단 카티스템은 국내에서 임상3상을 마치고 2012년에 출시되어 현재까지도 시판되고 있는 점과 5년 장기 추적관찰 결과 유의미한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타 바이오텍 대비 임상실패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현재 주가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카티스템의 성공적인 일본 임상3상 종료와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신약신청, 그리고 미국 임상3상 신청, 프로토콜 공개 및 환자 투약 개시인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호흡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선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더 적합할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R&D에 따른 캐쉬번 부담 일부 존재

II. 투자포인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메디포스트 별도기준 매출액의 과반수 이상은 제대혈은행에서 창출되고 있고, 카티스템의 임상진전 (일본은 종료시점이 임박함으로 관련 비용 축소예상) 에 따라 추가적인 R&D 비용 지출은 중단기에 지속될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1H25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보유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총액은 536억원이고 R&D 비용이 34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부담될 수 있지만 일본 임상 종료에 따른 비용축소가 더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포괄손익계산서

(십억원)	2021A	2022A	2023A	2024A	2Q25 (LTM)
(적용기준)	(IFRS-C)	(IFRS-C)	(IFRS-C)	(IFRS-C)	(IFRS-C)
매출액	55	64	69	71	72
매출원가	23	26	28	27	27
매출총이익	32	38	40	44	45
판매비와관리비	37	56	65	93	111
영업이익	-5	-17	-25	-49	-66
EBITDA	0	-12	-19	-43	-60
영업외손익	6	24	30	-14	-33
이자수익	1	1	3	3	3
이자비용	4	8	6	1	1
지분법손익	-2	-13	-4	-11	-13
기타영업외손익	10	43	37	-6	-23
세전이익	1	7	4	-63	-99
법인세비용	2	4	-1	0	0
당기순이익	-1	2	5	-63	-100
지배주주순이익	-1	3	6	-63	-99
수정순이익	-1	3	6	-63	-99

성장성 및 수익성 비율

(%)	2021A	2022A	2023A	2024A	2Q25 (LTM)
매출액 성장률	12.8	17.0	6.9	2.9	3.1
영업이익 성장률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EBITDA 성장률	적전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지배기업순이익 성장률	적지	흑전	90.2	적전	적전
매출총이익률	58.1	59.8	58.5	62.5	62.1
영업이익률	-9.5	-27.1	-36.6	-68.7	-91.4
EBITDA이익률	-0.6	-18.7	-28.1	-60.2	-83.2
세전이익률	1.1	10.1	6.4	-89.1	-137.4
지배기업순이익률	-1.2	4.8	8.5	-88.5	-137.3

현금흐름표

(십억원)	2021A	2022A	2023A	2024A	2Q25 (LTM)
영업활동 현금흐름	4	-5	-19	-37	-51
당기순이익	-1	2	5	-63	-100
유형자산상각비	5	5	6	6	6
기타비현금손익 조정	3	-11	-26	21	44
운전자본증감	-3	-2	-6	-3	2
매출채권감소 (증가)	2	-1	-2	0	0
재고자산감소 (증가)	-7	-2	-6	-3	-4
매입채무증가 (감소)	1	2	0	-3	0
기타운전자본증감	1	1	1	-1	6
기타영업현금흐름	0	0	2	2	-4
투자활동 현금흐름	-8	-109	-28	31	40
유형자산투자감소 (증가)	-10	-3	-3	-3	-2
무형자산투자감소 (증가)	0	0	0	-1	0
투자자산감소 (증가)	0	-30	0	0	0
기타투자현금흐름	2	-75	-26	35	43
재무활동 현금흐름	6	119	70	-1	-1
금융부채 증감	-1	118	-1	-1	0
자본의 증감	0	0	71	0	0
배당금 당기지급액	0	0	0	0	0
기타재무현금흐름	6	0	0	0	-1
기타현금흐름	0	0	0	2	0
현금의 증가(감소)	2	4	23	-5	-16
기말현금	11	15	38	33	43
잉여현금흐름 (FCF)	-6	-9	-22	-40	-54
순현금흐름	-6	-93	135	-59	0
순현금 (순차입금)	9	-84	51	-7	42

자료: 메디포스트, KB증권

재무상태표

(십억원)	2021A	2022A	2023A	2024A	2Q25 (LTM)
(적용기준)	(IFRS-C)	(IFRS-C)	(IFRS-C)	(IFRS-C)	(IFRS-C)
자산총계	254	398	449	414	387
유동자산	81	152	194	135	103
현금 및 현금성자산	11	15	38	33	43
단기금융자산	29	22	66	30	11
매출채권	10	12	12	12	12
재고자산	10	10	15	16	17
기타유동자산	21	93	64	45	20
비유동자산	173	246	256	279	284
투자자산	44	80	90	122	39
유형자산	111	136	138	136	134
무형자산	7	4	4	4	4
기타비유동자산	12	26	24	17	107
부채총계	92	215	136	162	178
유동부채	41	155	63	82	102
매입채무	1	2	2	3	2
단기금융부채	29	119	44	62	78
기타유동부채	11	34	17	17	21
비유동부채	51	61	72	80	77
장기금융부채	2	1	8	8	1
기타비유동부채	49	59	64	72	75
자본총계	162	183	314	253	209
자본금	8	8	17	17	17
자본잉여금	158	158	276	276	276
기타자본항목	-3	-4	-4	-3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4	59	58	60	57
이익잉여금	-48	-42	-36	-99	-140
지배자분 계	159	180	312	251	208
비지배자분	3	3	2	1	1

주요투자지표

(X, %, 원)	2021A	2022A	2023A	2024A	2Q25 (LTM)
Multiples					
P/E	N/A	91.7	38.0	N/A	-5.2
P/B	2.3	1.7	1.0	1.7	2.5
P/S	6.7	4.4	3.2	6.2	7.1
EV/EBITDA	N/A	N/A	N/A	N/A	N/A
EV/EBIT	N/A	N/A	N/A	N/A	N/A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EPS	-35	143	215	-1,647	-2,611
BVPS	8,157	7,727	8,208	6,621	5,487
SPS (주당매출액)	2,816	2,985	2,525	1,862	1,901
DPS (주당배당금)	0	0	0	0	0
배당성장률 (%)	0.0	0.0	0.0	0.0	0.0
수익성지표					
ROE	-0.5	1.8	2.4	-22.2	-38.4
ROA	1.1	3.2	2.7	-14.6	-24.0
ROIC	-1.3	-8.3	-12.6	-27.5	-62.1
안정성지표					
부채비율	56.7	117.9	43.3	64.0	85.4
순차입비율	순현금	46.1	순현금	2.9	12.4
유동비율	2.0	1.0	3.1	1.7	1.0
이자보상배율 (배)	-0.1	-1.5	-3.0	-85.0	-132.0
활동성지표					
총자산회전율	0.2	0.2	0.2	0.2	0.2
매출채권회전율	5.0	5.7	5.8	6.1	6.0
매입채무회전율	38.5	43.4	43.0	32.9	35.9
재고자산회전율	5.7	6.6	5.7	4.6	4.2